

Matsushita-Pioneer PDP 공동생산

Pioneer, 자체생산 중단 기술 이전 ... 6월 소비전력 감축 패널 개발

일본 Matsushita Denki와 Pioneer가 박형 TV용 플라즈마 패널 공동 개발·생산에 포괄적으로 제휴하는 방안에 공식 합의했다.

Pioneer는 플라즈마 패널 자체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자사 엔지니어들을 Matsushita로 이적시켜 양사 기술을 융합해 공동으로 사용할 패널을 개발하고 생산할 방침이다.

양사는 신규패널을 탑재한 플라즈마 TV를 2009년 하반기 Viera(Matsushita), KURO(Pioneer)라는 별도 브랜드로 출시할 방침이다.

양사는 6월 이후 신규패널 개발에 착수하며 Matsushita는 발광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Pioneer는 콘트라스트(명암의 차)가 높은 패널 및 박형화 기술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기술을 조화시켜 소비전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패널을 개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25>